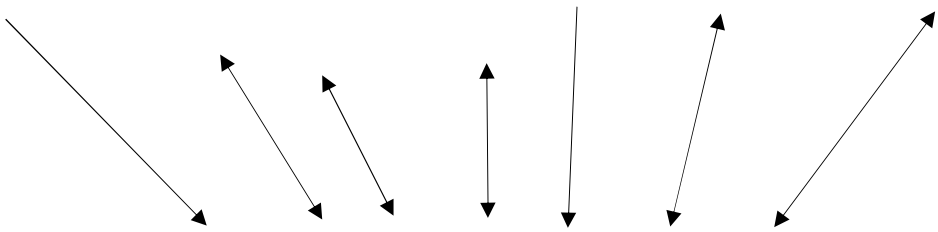
인문학	사회과학	수학	신경과학 생물학	물리학	인지공학, 로보틱스 강AI, 소프트테크놀로지
세계관 + 인식 (철학), 내러티브(문학), 의미표상(언어학 +철학, 사회과학)	문화 [Memes] 사회적 인지 [진화심리영역] <--- >
[인류학영역] 형식체계 [정치, 경제, 법 영역] - 분야 출현 순 -	표상/기호 [시스템신경과학] 계산/정보 생물적 진화 사회인지신경 인지(뇌)공학/ BCI	뇌 진화 복잡계 동역학체계 이론	의식 물리학 마음물리학 환경상호작용역동 마음 이론 (TOM) 특이점(<- 인간/기계) <---> 인지기능향상(CE) 미래테크 Human 2.0	계산 인간-환경 상호작용 정보 표상(자료)구조 인간행위시뮬레이션



21세기의 **인지과학**

---

* 인지과학은 AI, Internet과, IT, Robotics의 이론-개념적 모학문이며: (enabled the Emergence of the Digital Age, AI & IT, and Robotics in Human History),

** 기존의 여러 학문들은 그 본질상 '체화적 인지(Embodied Cognition)' 또는 '확장된(공간을 지닌) 마음 (Extended Mind)' 틀을 내포한 새 인지과학에 연결된다.

*** 인지과학은 그 본래적 특성이 학제적, 수렴적이며: (Multi-Disciplinarity)

**** 자연히 인문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테크놀로지 모두를 수렴하는 융합과학이다. : (A Convergence of Humanities, Social Sciences, Natural Sciences, & future Technologies)

***** 세계관, 인간관의 변화를 시사한다. (A Paradigm Shift from the Old Conception of Sciences & Technologies, and World View (man-machine distinction))

****** 인지과학은 인간-인공물(기계)의 구분을 넘어서 [제 2의 계몽시대]를 함의한다. : going beyond the Singularity, and implies the 2nd ***Enlightenment*** in human history)

---

*Copyright©2011, Jung-Mo Lee

[그림 1]. '체화된 인지' 접근을 도입하여 포함하는 인지과학과 다른 학문의 관계